

“다름”을 껴안으니 가슴 벅찬 행복이 오네요”

입양 김용환·조유순씨 가족

선물이 된 만남

열일곱·열여섯 아들 둔 부부
영아원 봉사하며 운명적 만남
방글방글 미소·천진난만 몸짓
조용한 집에 왁자지껄 웃음꽃
“활기 되살려준 연우에 감사”



김용환(왼쪽)·조유순씨 부부와 아들 건중·건우 군이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막둥이 연우의 재롱에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들 둘만 있어 조용한 집이었는데 연우 덕에 웃음이 넘쳐요.”

생후 11개월된 연우는 집안의 귀염둥이다. 20일 만난 연우는 동그란 눈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음을 터트리고, 먹을 걸 주면 양손에 하나씩 쥐고 입으로도 받아먹으려 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연우는 화순에 거주하는 김용환(48)·조유순(48)씨가 가슴으로 낳은 ‘늦둥이 딸’이다.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영아원에서 자란 연우는 생후 8개월 되던 때 김씨의 가족이 됐다.

조 씨는 지난 2013년부터 화순에서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심리치료를 진행하던 그녀는 시설 아동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모르며 지내는 게 안타까웠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 위해 매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며 생활했다. 시설 내에서는 배우지 못한 ‘부모-자녀’ 관계를 어렵게나마 알게 되는 등 아이들

의 시각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입양’이라는 걸 생각했다.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부정기적으로 시설 아동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입양을 통해 한 아이라도 근본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가족들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 때 남편 김씨가 먼저 ‘입양’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소 주말마다 아내와 시설 아동들을 돌봐오며 입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진정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속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10년 전부터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정신적 여유가 없어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며 “이제는 아들들도 다 컸고 아내도 원하는 것 같아 먼저 입양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입양을 결정하고 난 후 조씨는 지난 1월부터 고등학생 아들 건중(17), 건우(16)군과 주말마다 지역 영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엔 입양을 긍정적으

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들도 봉사활동을 하며 조금씩 마음을 바꿨다. 거기서 생후 3개월된 연우를 만났고, 가족 모두 연우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입양은 쉽지 않았다. 소득·재산 관련 서류부터 성장과정·학창시절에 관한 에세이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조씨는 “입양 과정이 진행되는 5개월간 모든게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고 지난 6월1일 연우는 김씨 가족의 품에 안겼다. 결혼 초창기부터 딸을 갖고 싶었던 김 씨는 ‘딸바보’가 됐다. 두 오빠들도 먼저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시로 놀아주는 등 누구보다도 연우를 예뻐하고 있다. 건중 군은 “여동생이 너무 예뻐서 한밤 중에 안방으로 보러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에선 큰 숙제가 놓여 있다. 언젠가는 연우가 입양아라는 것을 알게될 거라는 사실이다. 김씨

부부는 때가 되면 연우에게 사실을 말할 계획이다. 숨기고 살 수도 있지만 한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해야하고, 만약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씨는 “연우를 만나기 전에는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감정적으로 엮이고 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연우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주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보통 부모들처럼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야단도 치는 평범한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어떤 사람들은 입양 아이들이 양부모들에게 감사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연우가 더 고맙다. 연우 덕분에 가족들이 더 가까워지고 웃음이 많아졌다. 부디 연우가 긍정적인 아이로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종일·응웬티한씨 부부

다문화 가족

기쁨이 된 만남

시집온지 3개월 된 베트남 새색시
둘째 형님은 ‘동병상련’ 중국인
시어머니에 요리 배우며 한국 적응
첫 명절은 친정엄마 초청 양국 잔치
“새로운 가족과 만남…날마다 설레요”



한국에서 첫 추석 명절을 맞게 된 응웬티한씨가 24일 광주시 북구 자신의 신혼집에서 남편 박종일씨와 함께 한복을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덴장국’ 잘 끓여요. 음식 한 번 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첫 추석 명절을 맞게 된 응웬티한(29)씨는 한국 음식을 잘 만든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시집 온 지는 3개월 남짓이지만 고향에서 배운 요리 실력은 한국에서도 통했다. 이번 추석에는 베트남에서 온 친정엄마와 여동생과 베트남식 추석 상도 준비할 생각이다.

추석 연휴를 앞둔 24일 찾은 광주시 북구 그녀의 신혼집에서는 잠기름을 짜는지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다. 남편 박종일(40)씨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응웬티한씨는 요리 자랑부터 했다.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응웬티한씨는 김치찌개와 된장국을 가장 잘 만든다고 했다.

그녀와 남편은 지난해 4월 결혼을 했지만 출국 절차가 늦어진 탓에 신혼 살림은 최근에 차리게 됐다. 낯선 한국 생활이지만 ‘요리 실력’ 덕분에 남편과의 어색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화순 시댁을 드나들면서 시어머니(70) 어께 너머로 한국 요리를 터득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한 번 본 음식은 곧잘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은 ‘원유진’이라는 고운 한국 이름도 붙여줬다. 응웬티한을 한국식 발음으로 바꿔 부른 이름이다.

막내 며느리에 대한 시댁의 사랑도 대단하다. 유진씨의 거실에는 중국에서 복을 부른다고 믿는 커다란 자수 그림이 걸려있다. 붉은 실로 한 땀 한 땀 손수 짠 이 그림은 종일씨의 형수 작품이다. 종일씨의 둘째 형수는 중국인이다.

먼저 한국으로 시집과 겪었던 ‘다문화의 벽’을 알기에 유진씨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종일씨의 큰형네는 아예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다. 종일씨가 신혼집을 구할 때 큰형이 함께 집을 계약했다. 큰형수는 매일 유진씨의 바깥 나들이를 돕고 있다. 기계 제작 사업을 하는 종일씨가 집을 비우면 항상 큰형수가 찾아와 유진씨의 말벗이 돼 주고 있다.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어 유진씨의 여동생도 한국 적응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먼저 한국으로 시집 온 여동생과 유진씨는 최근 다문화센터에서 함께 요리와 한국어 등을 배우고 있다. 유진씨 여동생은 언니와 형부가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가교 역할도 했다.

호치민에서 승용차로 5시간 30분을 가야 하는 시골 출신인 유진씨는 동생의 소개로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베트남에서 1년 넘게 한국어 수업을 하며 결혼을 준비했고, 지난해 고국에서 베트남식 결혼식도 올렸다.

종일씨는 “가까운 곳에 형수와 처제가 있어 아내의 한국 적응이 더욱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고향에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아직 유진씨는 한국어가 낯설다. 천성연본인자, 남편과는 유독 대화가 잘된다.

유진씨의 한국 적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어머니의 전라도 사투리다. 고향에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는 도통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유

진씨의 설명이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막내 며느리인 유진씨를 아껴주고 남편의 ‘적절한 통역’이 곁들여져 큰 무리 없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다.

유진씨는 매주 시어머니 집에 다닌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리도 같이 한다.

유진씨는 “시어머니가 잘해주고, 음식을 잘 만들어 줬던 해주면 맛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추석은 유진씨가 한국에서 맞는 첫 명절이기에도 더욱 그녀에게는 남다른다. 그녀는 시댁인 화순에서 추석 차례를 올린 뒤 친정 엄마(55)를 집으로 초대해 베트남식 추석을 지낼 생각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비슷한 시기에 추석을 쇠기 때문에 올 추석에는 양국의 추석 날짜에 맞게 잔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진씨는 “여동생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친정 엄마와 추석을 쇠 수 있어 너무 좋다”면서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추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